

4차 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 통번역교육 사례연구*

진 실 희
(중앙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 중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의 교육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¹⁾ 특히 전문가 양성을 취지로 설립된 국내 전문대학원²⁾의 경우 변화가 필요함은 더욱 자명하다. 2017년에 발간된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는 교육 개혁이 소프트웨어 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기계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떠한 산

* 본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1) 2017년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 2) 2004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출범을 시작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 경영학, 국제학, 통번역학 등이 분야에 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업 분야든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번역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공지능경망(NMT)과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기계번역의 성능은 통계기반 기계번역(SMT)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들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과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크놀로지 패러다임 내에서 기계번역의 한계점을 찾고 번역사가 갖춰야 할 새로운 번역능력(신지선, 2017)에 대한 관심과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으로 시대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편된 국내 한 대학원 통번역학과의 교과과정 사례를 언급하고, 그 중 번역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의 형태로 컴퓨터보조번역(CAT)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통번역교육이란 전통적인 통번역 교육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의미한다. ‘기술전환시대(신지선, 2017)’ 이후 번역학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집중되어 있으며 CAT 프로그램 강의를 실행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구체적인 교과운영의 개선점을 고찰하고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는 의미가 있겠다.

2. 문헌 고찰

2.1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오늘날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자체를 높이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 내에서 교육 방법과 체계에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번역교육에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환경 및 방법론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우선, 기술전환의 시대를 맞아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언어 기술의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 박지영(2017)에서는 글로벌 20대 LSP³⁾의 통번역 서비스를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언어 기술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번역 대상의 변화, 번역 방식의 변화, 번역 주체의 변화, 번역료의 변화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글로벌 상위 20대 LSP 중 언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 번역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모두 다양한 기계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다(ibid:151). 아울러 번역 수요가 높은 기업들이 사내 기계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인하우스 통번역사들 역시 CAT⁴⁾ 프로그램 등 직무에서 필요한 언어 기술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ibid:15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 내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번역사의 역량을 제시한 신지선(2017)은 번역 작업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⁵⁾ 앞으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 디팅에 대한 연구도 CAT 못지않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포스트에 디팅 역량을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추가로 제시한 바 있다. 신지선(2017)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번역사가 갖춰야 할 기술로 1) 새로운 도구에 대한 학습능력, 2) 컴퓨터가 제시하는 여러 번역 대안 중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선별 기술, 3) CAT 툴이 제시하는 문장 단위의 결과를 더 큰 단위의 텍스트 차원에서 교정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게 됨(Pym 2013: 494; 신지선 2017: 61에서 재인용)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를 전망한 전현주(2017)는 인문학적 지식과 언어 소통 역량을 갖춘 인문학 전공자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
- 3) Language Service Provider의 약어로 통번역 등 언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함
 - 4) CAT(Computer Aided Translation)은 인간의 번역행위를 기계번역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김종희 2016:25).
 - 5) 소프트웨어와 인간이 융합된 형태로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은 과거 허친스(Hutchins et al., 1992)가 제시한 기계번역(MT, Machine Translation), 기계보조 인간번역(MAHT, Machine-Assisted Human Translation), 인간보조 기계번역(HAMT, Human-Assisted Machine Translation), 컴퓨터보조번역(CAT,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기계보조번역(MAT, Machine-Assisted Translation), 전자동고품질(기계)번역(FAHQ(M)T, Fully Automatic High-Quality (Machine) Translation)이 있다.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번역 툴 활용능력 향상, TM 생성 및 활용능력 증진, 클라우드소싱을 이용한 번역 프로젝트 참여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기회를 언급했다(전현주 2017: 253).

신경망번역기(NMT)의 학부 번역교육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김순미(2017)는 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최악시”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논했다. 특히 CAT 툴과 기계번역을 분리하여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짐을 제시했다(ibid: 9).

경영학의 확장(augmentation) 전략을 중심으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의 공존 방법을 제시한 김순미(2018)는 인간과 기계가 독자적으로 일할 때보다 협업을 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시대에 번역사가 살아남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경영학의 확장 전략의 맥락에서 제시했다. 첫째, 올라서기 전략(Step up)으로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전반적인 운영·개선·종합적인 분석을 할 것⁶⁾, 둘째, 비켜서기 전략(Step aside)으로 대인관계 지능이 요구되는 번역 팀, 또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셋째는 들어서기 전략(Step in)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검수·품질유지·일관성 관리·피드백 적용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네 번째로는 좁혀서기 전략(Step narrowly)으로 자동화되기 어려운 전문영역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앞장서기(Step forward) 전략으로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영역을 만드는 역할을 새롭게 제안했다. 나아가 협업 역량, 멀티태스킹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대인관계 역량, 전략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번역자들의 미래에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펴보면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 번역사의 업무 환경에도 기술 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번역사는 업무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을 능동적으로 다룸으로써 새로운 업무 환경

6) 예를 들어 번역 PM의 역할이 해당

에서 배제되거나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업, 소통, 대인적인 역량을 겸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도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번역사의 추가적인 역량이다.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그 외 주변 기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관한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번역사를 돕는 소프트웨어와 자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사가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lorez & Alcina(2011)에서 정리한 범주를 살펴보면 이는 크게 문서제작 프로그램(Editing and Publishing), 언어 툴(Language Tools), 번역 툴(Translation Tools), 번역관리 툴(Management Tools)로 구분되며 각 범주 별로 다양한 툴이 존재한다(아래 <표 1>).

<표 1> 번역에 사용되는 언어 기술 (Florez & Alcina 2011:339)

구분	프로그램
편집 및 출판 (Editing and Publishing)	Text editors, office suites, desktop publishing tools, advanced image editors, HTML and ZML editors, subtitle editors,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software, format conversion and validation utilities
언어 툴 (Language Tools)	Tools for terminology extraction, text analysis software,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resource lookup tools
번역 툴 (Translation Tools)	Translation Memory (TM) systems, machine translation programs, localization tools, translation memory editors, alignment tools, format conversion and validation utilities (for translation-related formats)
관리 툴 (Management Tools)	Project management programmes, word-counting tools, financial management software, resource management software, reference management tools, quality assurance tools

직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번역 역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보조 툴(CAT)과 기계번역 프로그램, 그리고 언어 툴의 범주에 속하는 용어관리 툴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번역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융합 강의에서 다룰 컴퓨터 보조 번역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CAT 툴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해당 기관과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CAT 툴이라고 할 수 있는 Trados가 개발된 이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CAT 툴이 개발되어 왔다. 번역을 위한 툴과 기술을 집대성한 Lombardino(2014)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번역사들이 사용해 본 CAT 툴과 사용해보고 싶은 CAT 툴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생들이 사용해본 CAT 툴 (Labardino 2014: 169)

구분	사용해본 툴	사용하고 싶은 툴
1	Trados	Trados
2	Wordfast	Swordfish
3	Swordfish	Wordfast
4	Omega T	OmegaT
5	Across	Across
6	memoQ	
7	Deja Vu	
8	Google Translator Toolkit	

이러한 CAT 툴은 과거 파일기반 로컬 PC에서 이루어지던 작업이 서버 기반으로 변화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번역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 국내 LSP 대표에 따르면 “Trados라는 대표적인 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서버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툴도 한두 가지는 미리 학습해야만 번역가로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연구한 사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졸업생들이 직무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은 트라도스(SDL Trados Professional)를 PC 기반 툴로 사용했다. 그리고 다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멤소스(Memsource)를 실습 툴로 활용했으며, 2020년 1학기부터는 인지도가 높은 또 하나의 CAT 툴인 워드패스트(Wordfast)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졸업생들이 실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툴을 경험해본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CAT 툴에 대한 강의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김종희(2016)

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CAT에 관심을 가져온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툴의 역사와 현황 소개, 툴을 활용한 번역 사례를 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기관에서 수업개발 및 과정 운영에 참고할 수업모형을 개발해 제시한 바 있다. 주로 해외대학의 컴퓨터 보조 번역 수업 사례를 분석한 김종희(2016)에서 제시된 수업모형은 다음 페이지의 <표 3>과 같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해외수업사례를 1,2,3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 유형은 CAT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유형은 입문적 성격으로 이론을 비롯해 기본적인 CAT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3 유형은 이론을 중심으로 번역과 기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즉, 유형 1은 CAT 툴의 실무 활용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3 유형은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2 유형은 두 가지를 조합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례로 든 수업은 1 유형에 해당한다. 이론과 실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선택이 중요한 가운데 본고에서 1 유형을 선택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은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통번역 대학원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과정의 학생들은 이론적인 것 보다는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2.3 기술융합 교육에서 고려할 사항

이상의 2.1절에서는 번역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를 확인했으며, 테크놀로지 전환 시대를 맞아 수업의 내용뿐 아니라 수업 진행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찰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능력과 함께 협업, 소통 등의 대인관계 역량과 단순 번역을 벗어난 멀티태스킹, 전략적·창의적 사고 및 종합적 분석 능력 등이 강조된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는 번역 작업의 대량화 추세(박지영 2017: 158, 신지선 2017: 56)와도 맞물려 있어, 교육과정에서도 개인번역이 아닌 팀번역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번역을 서로 비교하며 경쟁심을 유발하기보다는 협업과 소통, 전략, 창의성이 요구되는 수업 운영으로 방법론적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CAT 수업 모형 제안 (김종희 2016:38)

항목	유형	내용
학습목표	1	번역 및 CAT 전반에 대한 이론 숙지, CAT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숙달
	2	CAT의 기본 개념 이해, CAT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
	3	주요 번역 이론 숙지, 기술문명(컴퓨터)과 번역의 관계 이해
학습내용	1	MS Word, Translation Memory, Terminology Management, Machine Translation, Localization, fully-automatic and high-quality translation, CAT tools, Open-source Systems, Proprietary systems, Translation industry
	2	CAT, MT, terminology management tools, localization
	3	Orality and oral cultures, Literacy and major translation projects, Humanism and print culture, Technical translation and functional approaches, Modern media, Word processing, CAT, MT, Crowd sourcing and web 2.0
평가방법	1	출석(10%), 과제(10%), 프로젝트(10%), 시험(50%), 에세이 또는 저널(10%), 퀴즈 또는 발표(10%)
	2	출석(15%), 과제 또는 발표(15%), 프로젝트 (70%)
	3	시험(60%), 협력작업(40%)
평가내용	1	CAT/MT의 개념 및 이론, CAT/MT 관련 툴 활용
	2	번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번역(Kantan MT)
	3	번역학
학습성과	1	CAT 관련 지식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 번역시장 및 산업 동향 파악을 통한 능동적 대응, 이론적 소양의 함양을 통한 이론과 실제의 결합
	2	CAT 관련 이론의 이해, CAT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활용
	3	번역에 대한 이해 심화, 번역과 기계(기술)의 연관성 이해

3. 교과 개편의 방향과 수업사례

3.1 교육 환경적 맥락과 배경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는 2017년부터 중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의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과과정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도 1

학기부터 전형적인 전통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에서 벗어나 기술융합 교과목이 추가되고 기존의 교과목이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통역 및 번역 과목에서도 시장의 기술융합 추세와 환경 속에서 통번역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 강의 내용에 반영되는 등 현장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교과 개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원칙은 전통적인 통번역 과목과 기술융합 교과목 간의 조화와 균형⁸⁾이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 전환의 시대에서도 수준 높은 통번역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목 간 연계성과 순서도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 외에도 시장의 새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분야를 향한 확대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강의들을 신설했다. 특히 창의적인 언어응용력을 함양하고 영어 국제회의의 사회자, 외국어 방송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등 교과 전반에 걸쳐 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볼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강의는 3학기 과정으로 개설되어 1학기의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라는 번역 테크놀로지 입문 강의와 연계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은 1학기부터 번역메모리와 용어집을 구축하여 3학기 로컬라이제이션 강의에서 활용하고 졸업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강의 사례

이상에서 언급한 교과과정의 맥락에서 진행된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강의는 통번역에 새로 입문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표 4>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3학기에 Trados를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 입문용 CAT 툴로 Memsource를 실습한다. 기본적인 CAT

- 7) “과제부여, 개인별 과제수행, 수업 시간 내의 토론 등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실습 위주의 정형화된 형식(송연석 2016, 이상빈 2016: 김순미 2017: 5에서 재인용)의 번역 강의 및 정치법률 번역, 산업경제 번역 등 전문분야별 진행되는 번역 강의를 말한다.
- 8) 전통적 과목과 기술융합과목간의 연계성 및 균형을 위해 CAT 툴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3학기에는 ‘문화예술콘텐츠번역’ 강의를 개설해, 기계번역과 CAT 툴로 다루기 용이하지 않는 장르의 텍스트를 다루도록 했다.

의 개념으로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구축 방법을 시연하고 실습을 한 뒤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약 50여 명의 1학년 학생 전체가 전공 언어와 주제영역별로 그룹을 형성하며, 자체적으로 PM을 선정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소규모 용어집을 만드는 프로젝트 형태의 과제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물은 형식과 파일 포맷을 통일하여 Termbase 형태로 CAT 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기가 끝나면 해당 그룹이 만든 코퍼스를 동일한 전공언어 그룹 간 상호 공유하여 집단지성과 협업의 결과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2019 1학기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강의계획서 (일부발췌)

구분	내 용
강의개요	☞ 본 강의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번역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틀 사용방법을 실습하고 전문용어 및 번역메모리 구축 과정을 프로젝트 형태로 체험한다.
강의목표	☞ 본 강의에서는 기계번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번역사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통번역 소프트웨어의 사용 맥락과 실제 사용법을 익히며, 향후 로컬라이제이션 강의에 대비하여 CAT 틀과 연계된 자산구축 방법을 익힌다.
운영방법	☞ 본 과정은 강의와 그룹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강의는 전임교수 강의와 외부 전문가 특강 및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기대성과	☞ 본 강의의 기대 성과는 로컬라이제이션 번역 이해, 1개 이상의 CAT 틀 활용능력 함양, 번역자산 구축 능력; 번역 프로젝트 과정과 실무에 대한 이해증진이다.
평가방법	☞ 출결(20%), 참여도/태도(30%), 과제(30%), 기타(20%)
프로젝트	<p>☞ 반별 반장(분반별 1인, 전공언어별 대표반장 1인)을 선출하여 Project Manager의 역할을 하며, 학우들의 진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반장간 필요한 연락을 취하도록 첫 수업시간에 연락망을 구축한다.</p> <p>☞ 그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격주로 추진계획 및 진도를 확인하는 등, 대형 번역 프로젝트 수행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분량을 분배한 번역 수행, 리뷰, 조율, CAT 사용, TM/TB 구축, 대형 프로젝트 관리)</p> <p>☞ 각 반 반장은 담당 반의 자료를 전체 취합한다. 반장은 자료를 수신하는 즉시 형식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반송한다. 각 반의 반장은 반별 취합 후 전체반장에게 전달한다.</p> <p>☞ 전체 반장은 전공학과에 해당하는 파일을 취합하여 본 강의 담당 교수에게 **까지 제출한다.</p> <p>프로젝트 관련 문의: *** 교수(이메일 주소), 기타 구체적인 강의 자료는 e-class 참고</p>

강의 일정 (예시)	3월 6일: Change Landscape in T&I Industry
	3월 13일: 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MTPE)
	3월 20일: Computer Assisted Translation (CAT): 클라우드 기반 CAT 툴, Memsource 소개
	3월 27일: 클라우드 기반 CAT 툴, Memsource 실습 메뉴 및 인터페이스 익히기
	4월 3일: 클라우드 기반 CAT 툴, Memsource 실습 TM, TB 구축 실습
4월 10일: 그룹 프로젝트 개시 (이하 생략)	

3.3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강의 사례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강의는 위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강의와 프로젝트를 통해 번역메모리와 용어집을 구축한 3학기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한영과의 경우 총 3개 분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10명 내외의 인원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표 5>의 강의계획서와 같다.

<표 5> 2019 1학기 한영 로컬라이제이션&포스트에디팅 강의계획서 (일부 발췌)

구분	내 용
강의개요	로컬라이제이션 번역과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으로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번역사에게 필요한 컴퓨터 자원과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익힌다.
강의목표	본 과목은 번역사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컴퓨터능력을 포함하여 트라도스와 멤소스 등 CAT 툴(Computer-Aided Translation Tool) 사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방법	개념 및 배경 이해, 툴 사용 시연 및 실제 번역 실습에 적용
기대성과	로컬라이제이션 번역사로 활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능력 함양 다형 번역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팀워크 및 관리 역량 함양 기타 번역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Trados 등 주요 CAT 툴 활용 인증시험에 필요한 지식배양
평가방법	출결(10%), 참여도/태도(30%), 과제(30%), 수업 중 활동(30%)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에서 교과과정 개편과 함께 도입한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강의는 2019년 1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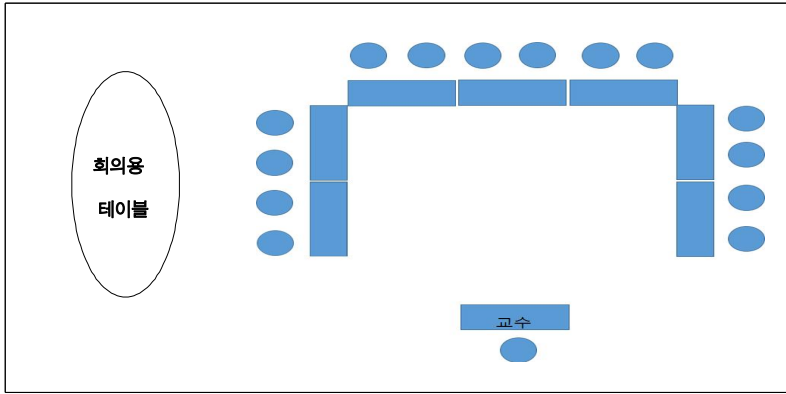
기부터 다음 <표 6>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6> 2019 1학기 한영 로컬라이제이션&포스트에디팅 강의 일정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통번역 산업의 기술적 전환 로컬라이제이션의 이해	9	중간고사
2	기계번역의 특성 이해	10	CAT 2: Trados 주요 메뉴 및 인터페이스
3	기계번역후처리 가이드라인	11	번역메모리(TM) 생성 및 활용
4	기계번역후처리 실무 Light MTPE vs Full MTPE	12	용어집(TB) 생성 및 활용
5	CAT 1: Memsource 주요 메뉴 및 인터페이스	13	프로젝트 관리 및 실무(1)
6	번역메모리 생성 및 활용	14	프로젝트 관리 및 실무(2)
7	용어집(TB) 생성 및 활용	15	Trados 전체 리뷰
8	프로젝트관리(PM)	16	기말고사

멤소스가 강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멤소스 도입 전인 2018년에 1학기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해당 툴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1학기에 멤소스를 배운 학생들은 3학기에 워드패스트와 트라도스로 번역 실습을 하게 되어, 점차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다루는 툴을 다각화하고 있다. CAT 툴을 본격적으로 교과과정에 융합시키면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은 고가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전용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추가 강의실과 CAT 툴 설치가 가능한 사양의 PC를 최대 수강 인원보다 넉넉하게 확보해야 했다. 본교의 사례는 강의 최대 인원이 12명이었으며 교수자용을 포함해 총 15대의 CAT 툴이 설치된 PC를 확보했다. PC 여유분을 설치한 것은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 오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의실 배치도는 팀 활동과 협업이 용이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전통적인 강의식 배치에서 벗어나 타원형으로 배치되었다. 아울러 팀 회의를 위한 대형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를 강의실 뒤편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해상도가 낮은 기존의 빔 프로젝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고화질 TV 모니터를 교수자 PC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림 1〉 대학원 전용 CAT 툴 실습실 배치도



이 강의에서는 트라도스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1학기에 구축한 용어집을 사용해 번역 메모리와 CAT 툴을 사용해 실제 번역을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진행한 분반에서는 멤소스를 먼저 학습한 뒤 트라도스로 강의를 진행했다. 본 강의는 기존에 진행하던 개인 번역을 대량 번역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회의를 통해 PM을 선정해 학급 내에서 역할을 분담한 뒤 분량을 나누어 번역하고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실무형 팀 번역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번역 대상 텍스트는 로컬라이제이션과 CAT툴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각종제품의 매뉴얼, 규정집, 계약서 등 일관성과 반복성을 지닌 자료를 다루었으며,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용어가 집중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번역하였다. 그 외 강의 내용은 <표 6>의 강의 일정과 같으며, 소프트웨어 사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비교하는 다양한 활동, 기계번역 후처리 가이드라인 (KIGO) 숙지, 약식 및 정식 포스트에디팅 기준에 따른 실습, 각 툴의 인터페이스와 메뉴 익히기, TM/TB 활용, PM 맥락에서의 번역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매주 강의는 이전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시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해당 주 학습 내용에 대한 교수자의 시연과 학습자들의 팀기반 실습과제로 이어졌다. 강의 중에는 협력과 소통, 옆 사람 돕기 등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었다.

본고에서 소개한 수업 진행 중 연구자는 강의일지를 통해 몇 가지 관찰사항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일부 본 사례연구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관찰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통번역 교과와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에 있어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2018년 최초로 CAT관련 강의를 진행해본 결과, 수업 초기에 관련 배경공부 및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이나 학습동기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려운 프로그램 사용을 익히기 위해 타수업에 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비공대 전공자들이 대부분인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왜 해당 프로그램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과 큰 열의 없이 참여하거나 심지어 반감을 갖는 학생의 모습도 간혹 관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 관계자가 아닌 ‘내부자’의 관점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통번역을 전공한 교수가 직접 체감한 필요성을 강의 및 토론의 형태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성찰할 수 있었다. 이에 2019년에 동일한 강의를 실시할 때는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전환 등에 관한 논문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숙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학습 동기유지와 수업의 집중도를 올리고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로컬라이제이션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번역 강의에서는 일종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했다. 특히 개인번역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협업과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일한 텍스트를 개별과제로 수행하던 경쟁적 방법에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높은 품질의 번역을 팀워크를 통해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협력과 소통, 업무분배 등이 강조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업계에서 권고하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숙지활동 등이 도움이 되었다.

셋째, 아무리 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이지만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다. 2018년도 최초로 강의를 진행할 당시에는 자칫 수업이 툴 사용 방법론에 치중한 주입식 강의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아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번역 절차가 손에 익지 않아 한 주가 지나면 다시 낯설어 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한 주

전에 학습한 내용을 학생이 나와 다시 시연하고 전 학급이 이를 따라하는 복습 시간은 반복을 통한 숙달과 기술의 체화에 도움이 되었다.

넷째, 수업의 전 과정에서 우수 학생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본 사례에서는 강의에 따라 10명에서 50명 이상의 학생에게 툴 시연 후 개별 지도가 불가능했다. 2018년 처음 도입 시에는 문제가 있는 학생 한명 한명을 돕기 위해 강의실을 다니다가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일부 빨리 익힌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전체적인 집중도나 학습 분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업 조교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 도입 시 해당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조교도 없었으며, 조교에 의존하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실행에서는 기술을 빨리 익힌 학생들이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주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활발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자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강조되는 협력적 인재상을 육성하는 데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협력에 평가 비중을 높여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트라도스라는 툴의 2018년도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2019년도부터는 보다 익히기 쉬운 툴로 먼저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2019년부터는 맴소스를 먼저 학습한 후 Trados 2019 버전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Trados 2019 버전은 Trados 2018 버전보다 사용이 편리해진 면이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트라도스만 학습한 타 분반 학생들은 여전히 툴 사용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에서 간단한 툴을 먼저 익히고 난이도 높은 툴로 옮기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4. 학습자 기술수용도

이상에서 상세히 기술한 두 강의에서 2종의 CAT 툴을 사용해 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용모델 척도(TAM)를 활용해 해당 툴에 대한 학생들의 사용

용이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TAM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발된 척도로 1989년 최초로 제안(Davis 1989)된 이후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정보기술의 사용 또는 수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적용되어왔다(김태구 외 2005:315). TAM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태도(Attitude) 및 사용의사(Intention to Use)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사용의사 등 신기술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심리측정이다. 본 연구에서 TAM을 실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사, 태도 등 개별 항목을 통해 향후 CAT 툴 강의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얻기 위함이다. 참여 인원이 20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결과를 기술적 통계자료로 참고하였다. 하지만 향후 수업이 반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200명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경로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기술사용의사와 행동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1 학습자 기술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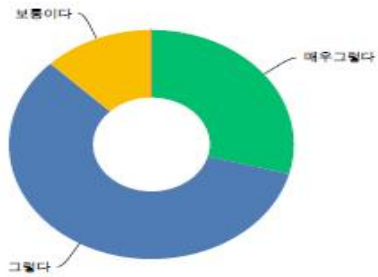
한영전공 1, 2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몽키를 활용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두 CAT 도구를 사용해 본 1학년과 2학년이며, 총 56명 중 50명이 응답했다. 다음은 각 수용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4.1.1 인지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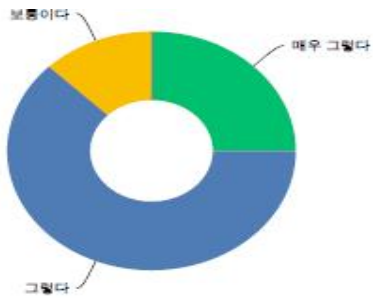
인지유용성은 사용자가 인식하는 신기술의 유용성, 즉 신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항별 응답을 살펴보면 ‘CAT 툴은 더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한다.’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29.2%), 그렇다(58.3%), 보통이다(12.5%)로 응답했다. ‘CAT 툴은 번역의 업무 성과를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20.8%), 그렇다(75%), 보통이다(4.2%)로 응답했으며, ‘CAT 툴은 나의 생활에 매우 유용하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12.5%), 그렇다(37.5%), 보통이다(41.7%), 그렇지 않다(8.3%)로 응답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CAT 툴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

다(25%), 그렇다(62%), 보통이다(12.5%)로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CAT 툴이 유용하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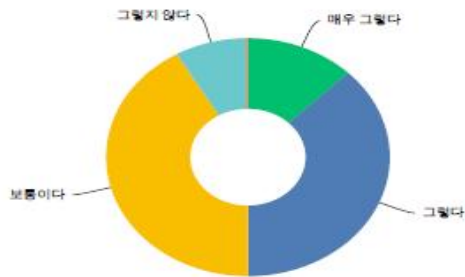
Q1. CAT 툴은 더욱 빨리 번역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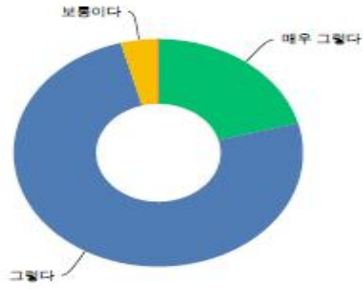
Q2. 전반적으로 CAT 툴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Q3. CAT 툴은 나의 생활에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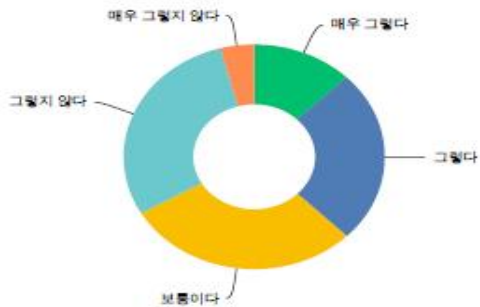
Q4. CAT 툴은 번역의 업무 성과를 높여 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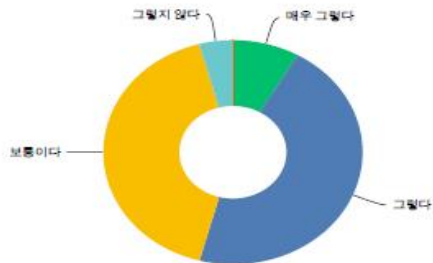
4.1.2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기술수용도의 두 번째 항목은 학생들이 인지하는 신기술의 용이성이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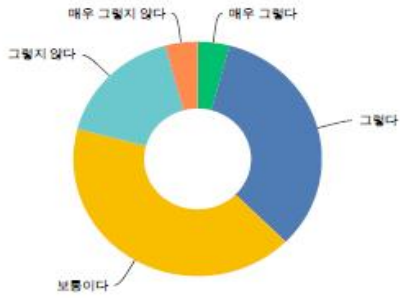
Q5. CAT 툴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것이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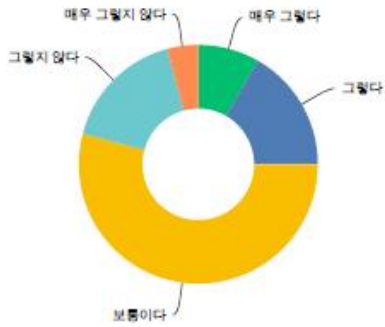
Q6. 나는 CAT 툴 사용이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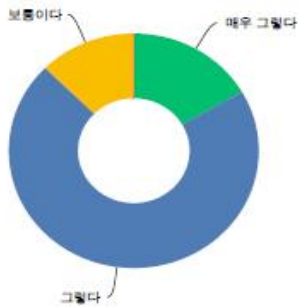
Q7. CAT툴의 사용과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Q8. 전반적으로 CAT툴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



Q9. CAT툴을 사용하면 번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어서 ‘전반적으로 CAT 툴 사용은 쉽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8.3%), 그렇다(16.7%), 보통이다(54.2%), 그렇지 않다(16.7%), 매우 그렇지 않다(4.17%)

로 다양한 응답이 도출되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기술수용도의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학생들이 CAT 툴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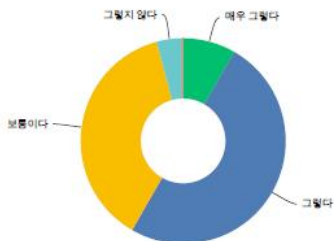
4.1.3 태도(Attitude toward Use)

이 문항은 기술수용문항 중 신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먼저 ‘CAT툴은 번역 업무의 만족을 보장해준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8.3%), 그렇다(58.3%), 보통이다(25%), 그렇지 않다(4.17%), 매우 그렇지 않다(4.17%)로 응답했다. 이어서 ‘CAT 툴은 나의 기대에 부응한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8.3%), 그렇다(50%), 보통이다(37.5%), 그렇지 않다(4.17%)로, ‘CAT 툴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8.3%), 그렇다(45.8%), 보통이다(41.7%), 그렇지 않다(4.2%)로 고르게 응답했다. ‘나는 CAT 툴을 신뢰할 수 있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12.5%), 그렇다(83.3%), 보통이다(4.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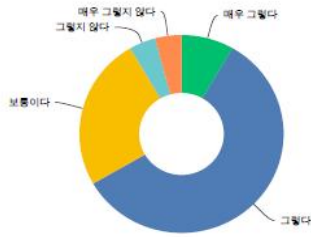
Q10. 나는 CAT툴을 신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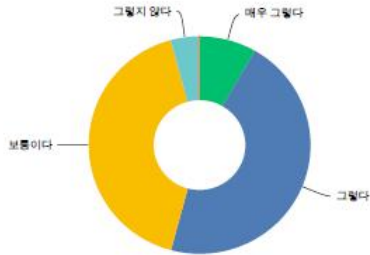
Q11. CAT툴은 나의 기대에 부응한다.



Q12. CAT툴은 번역 업무의 만족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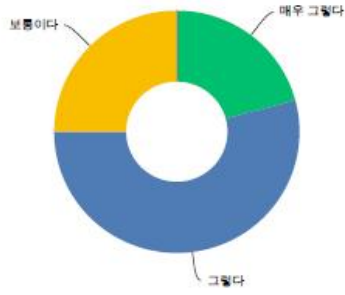
Q13. CAT툴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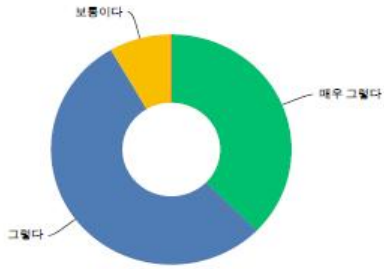
4.1.4 사용 의사(Intention to Use)

다음 기술수용 문항 중 사용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는 ‘나는 향후 CAT툴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25%), 그렇다(62.3%), 보통이다(12.5%)로 응답했다. 이어서 ‘나는 향후 CAT 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37.5%), 그렇다(54.2%), 보통이다(8.3%)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CAT 툴 사용을 추천하겠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20.8%), 그렇다(54.2%), 보통이다(25%)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AT 툴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8.3%), 그렇다(70.8%), 보통이다(20.8%)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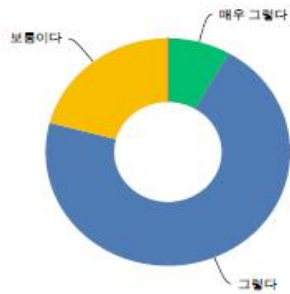
Q14.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CAT툴 사용을 추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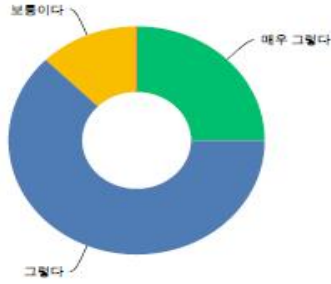
Q15. 나는 향후에 다시 CAT툴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16.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CAT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Q17. 나는 향후에도 CAT툴을 사용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대체로 CAT 툴의 사용을 쉽게 여기지는 않지만 CAT 기술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용 의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문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인 통번역학과의 특성상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전문대학원의 특성 상 본인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구자를 향후에 해당 툴의 사용이 보다 쉽다고 체감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향후 데이터 누적을 통해 TAM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질적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1.4 교수자의 관찰 및 성찰

본고에서는 강의의 배경과 진행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설문결과, 교수자의 관찰 및 성찰사항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강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요소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이 성찰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기존 통번역대학원의 전통적인 교과목과 풍토에 익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툴 사용의 의미와 용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본고의 사례에서는 해당 강의를 반복하면서 살핀 결과, 관련 문헌자료의 주요 내용을 함께 숙지하고 발표 및 토론활동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또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CAT 산업 전문가가 특강을 진행할 경우 공감대 형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AT 툴을 사용한

번역은 기존의 통번역대학원의 목표 시장이나 풍토와는 다소 이질감이 있기에 같은 맥락 안에서 생활하는 교수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앞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활동은 번역이 개인 작업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도구로 기능했다. 즉, 학생들이 수행하는 번역작업이 개인적 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협업의 생태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측면을 보였다. 특히 팀을 이루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써 각 개인이 번역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기에 학생들에게 협업과 소통,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툴의 기능을 다루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주입식 강의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툴 사용법을 학생들이 체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연하고 사용법을 발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두 번의 시연으로는 관련 기능의 온전한 숙지가 어렵기에 교수자가 시연한 내용을 학생이 다음 주에 다시 시연해 봄으로써 반복 숙달을 통해 해당 절차에 익숙해지는 수업 방식이 기술 체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수업의 전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본 연구자의 경우 강의에 따라 10명, 또는 50명 이상의 학생에게 개별 지도가 불가능하기에 기술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이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에 강조되는 협력적 인재상을 육성하는 데에도 부합한다.

다섯째, 과제 실습 시에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는 달리 팀워크가 필요한 협업 과제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동일한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번역한 뒤 비교하던 기존의 경쟁적 방식에서 하나의 긴 문서를 전체 학급에 제시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분할 작업 후 통합하는 등 하나의 팀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특히 로컬라이제이션 강의에서 필요한 협업 인식과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섯째, 두 개 이상의 툴을 강의할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툴을 먼저 학습하게 하면 어려운 툴을 학습할 때 보다 강의 효과가 높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CAT 툴의 세부기능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원리와 구성요소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고 사례에서 학생들이 보통 어렵다고 하는 Trados 툴을 배우기에 앞서 Memsource 툴을 먼저 학습하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별로 디지털 문해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기술을 잘 다루는 학생들의 실력이 전통적 강의 방식에서의 실력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은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과 관련 텍스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과개편의 결과 각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보다 잘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통역과 번역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CAT 툴 사용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학생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가면서 교수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본 사례의 강의를 진행하며 체감한 어려움은 기술적 오류에 대응하는 문제였다. 또한 텍스트 준비 등의 과정에서 전통적 강의에 비해 확연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점이 어렵게 체감되었다. 또한 툴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매 학기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편된 국내의 한 대학원 통번역학과의 교과과정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2년간 진행된 2개의 번역 소프트웨어 관련 강의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기술 수용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교과운영의 개선점을 찾고 구체적인 교과운영 방안 및 교수법 개선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사례로 든 강의를 통해 본 연구자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들이 툴 사용의 의미와 용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및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은 현장의 협업 역량을 인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툴 사용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시연 및 발표가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숙달해야 한다. 넷째, 수업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개별과제를 제시하는 전통적인 번역 강의와는 달리 소통 등의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팀 위주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대신 협력을 강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간단한 툴을 학습한 뒤 어려운 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별로 디지털 문해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본 사례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수자로서 느낀 어려움은 기술적 오류에 대한 대응, 텍스트 등 수업 준비의 부담, 툴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교수자 역시 학습자의 자세로 강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대응 조직의 구성과 교수자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의 기술 수용도 양상을 살펴볼 때, 보다 흥미로우며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문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인 통번역학과 특성상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으나 유용성과 사용의사가 용이성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보다 쉽게 툴을 설명하는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 또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 번역학의 선행연구가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에 집중되어 왔으며, CAT 툴 강의를 실제 수행한 구체적 연구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교과운영의 개선점을 고찰하고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연구는 참여 학생 수가 제한적이며 특정 대학원에서 진행한 강의에 대한 연구였기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이용한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해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통번역대학원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기술 수용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번역 교수자에 대한 기술 수용도 평가로 확대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7) 「신경망번역기(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5-37.
- 김순미 (2018) 「인간번역과 기계(NMT)번역의 공존 방법: 경영학 ‘확장(Augmentation) 전략’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2): 1-25.
- 김중희 (2016) 「해외대학의 CAT(Computer Aided Translation) 수업사례분석을 통한 언어 기반 융합수업 모형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4(3): 25-43.
- 김태구, 이재형, 이혜숙 (2005) 「호텔회계정보시스템 이용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관광학회』 28(4): 313-334.
- 박지영 (2017) 「언어 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대 글로벌 LSP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 신지선, 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 이노신, 이신재, 이재영, 이주희 (2016)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7(2): 65-89.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전현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61.
- 한승희 (2016) 「CAT툴 기반 다자수행 번역의 형태적 특징 연구: 영한 번역의 문장길이와 결속관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167-188.
- 최수연 (2017)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 AI 시대의 영상번역」, 『번역학 연구』 18(2): 207-228.
- Davis, Fre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Florez, Silvia and Alcina, Amparo (2011) ‘Free/Open-Source Software for the Translation Classroom’,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5(2):

325-357.

Hutchins, John and Somers, Harold (1992) *An introduction to machine translation*, London: Academic.

Pym, Anthony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479-672.

Lombardino, Rafa (2014) *Tools and Technology in Translation: The Profile of Beginning Language Professionals in the Digital Age*, Santee: Word Awareness.

[Abstract]

A Case of Technology Integration in T&I Curriculum

Jin, Sil-he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how technology was integration was implemented at a post-graduate T&I curriculum in Korea. Based on market research and trends following the ‘technological turn’ in Translation Studies, an across-the-board change in the curriculum was designed. In particular, the case study provides a descriptive account of how Computer-Aided Translation (CAT) technologies were incorporated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Technological acceptance of the students following their use of the CAT tools as well as the researcher-instructor’s observations are presented in detail. Overall, the students responses were positive, but their response for Intention to Use (IU) and Perceived Usefulness (PU)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rceived Ease-of-Use (PEU) and Attitude (AT) towards the CAT software. Since a majority of the students are from non-engineering background, the researcher reflects on the need to find easier and more interesting ways in which the students can learn, leverage on, and fully enjoy the new softwares in successive future implementations.

▶ Key Words: Computer Aided Translation (CAT), Technology Integration, Translator Training, Translation Technology, Trados, Memsource

▶ 주제어: 컴퓨터보조번역 (CAT), 기술 융합, 번역 교육, 번역 기술, 트라도스, 멤소스

진실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조교수

ke9740@ca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통번역 교육공학, 통번역 테크놀로지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